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 16.(목) 총 5매(본문 3)	
담당 부서 대 광 위 광역교통요금과	담 당 자	• 과장 장구중, 사무관 유찬호, 주무관 이진문 • ☎ (044) 201-5082, 5084	
보 도 일 시	2020년 1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광역알뜰교통카드로 한달에 12,246원 아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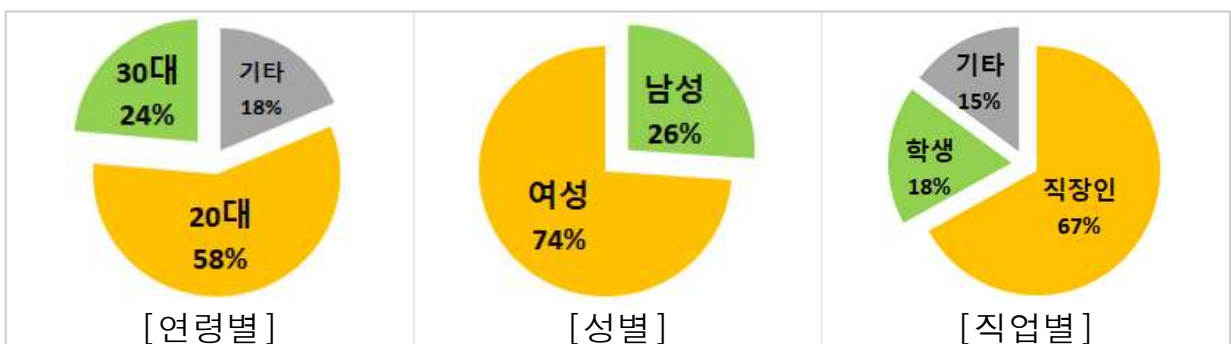
- 대중교통비 월 평균 17% 절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
- 대중교통 월평균 이용횟수 약 10% 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
- 올해 대상지역을 확대(13개 시도, 101개 시군구)하여 본사업 시행 예정

- 지난해 시행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19.6~12)에서 이용자들이 월 평균 12,246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2019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시범사업의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 알뜰카드 시범사업 시행지역에서 '19.7.1~12.31(6개월)간 알뜰카드를 사용한 14,502명 대상
-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40.6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72,253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출하였으며, 12,246원(마일리지 적립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의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약 17%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출·퇴근 시 매일 이용할 경우(월 44회) 월평균 13,930원(마일리지 적립 9,726원, 카드할인 4,204원)을 아껴 보다 많은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평균보다 1,684원 더 절감)

- 아울러, 월 평균 절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층의 교통비 절감'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알뜰카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용자의 68%(9,509명)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민으로 나타나 장거리 통근이 많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
- 월 41회 이상 사용자가 이용자의 50%(7,256명)에 달해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대(8,378명, 57.8%)·30대(3,424명, 23.6%) 젊은 층의 호응(81.4%)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4%(10,720명)로 남성(3,782명, 26%)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67%) 및 학생(18%)이 많이 사용하여,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19년 사업 이용만족도 조사(11.20~11.27, 이용자 5,298명 대상) 결과, 만족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82.7%(매우 만족: 35.1%, 만족: 47.6%), 추천 의향에 응답한 비율은 89.0%(매우 추천: 50.2%, 추천: 38.8%)로서, 서비스 이용 후에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알뜰카드 사용 후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가 약 10% 증가(월 평균 33.5회→36.9회)하였다고 응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단 표 참조)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로서,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하	2천원~3천원	3천원 초과	비고
마일리지 지급액	250원	350원	450원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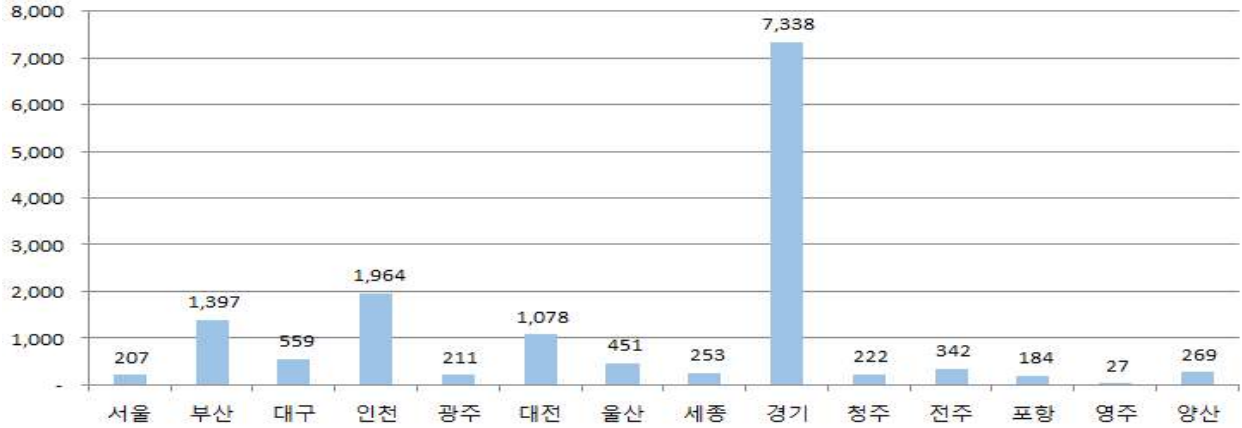
-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사업효과가 확인된 알뜰카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지역(붙임 참조)이 전국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전면 확대된다.
- 알뜰카드 이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은 광역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alcar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알뜰카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 "교통비 절감과 건강 증진,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유찬호 사무관(☎ 044-201-5082)이나 이진문 주무관(☎ 044-201-50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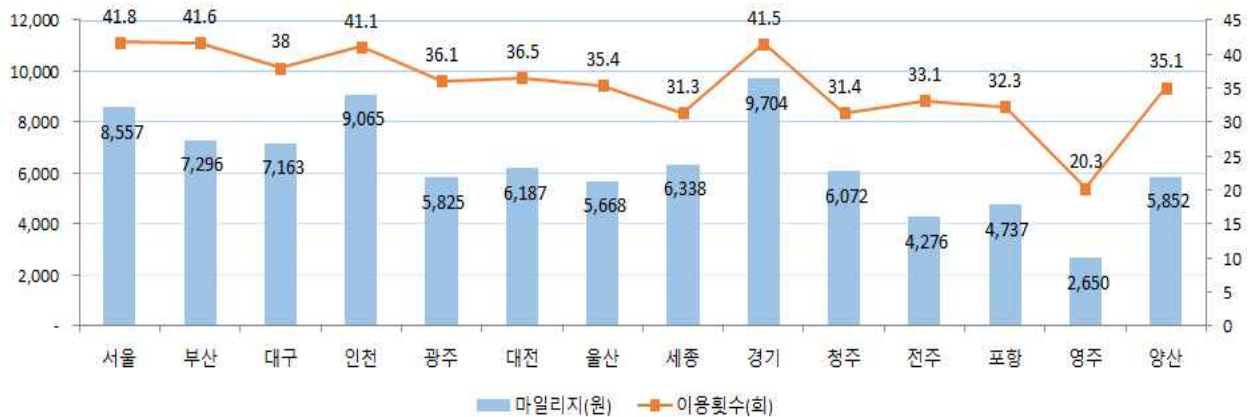
참고

상세 분석 결과(12월 기준) 및 '20년 사업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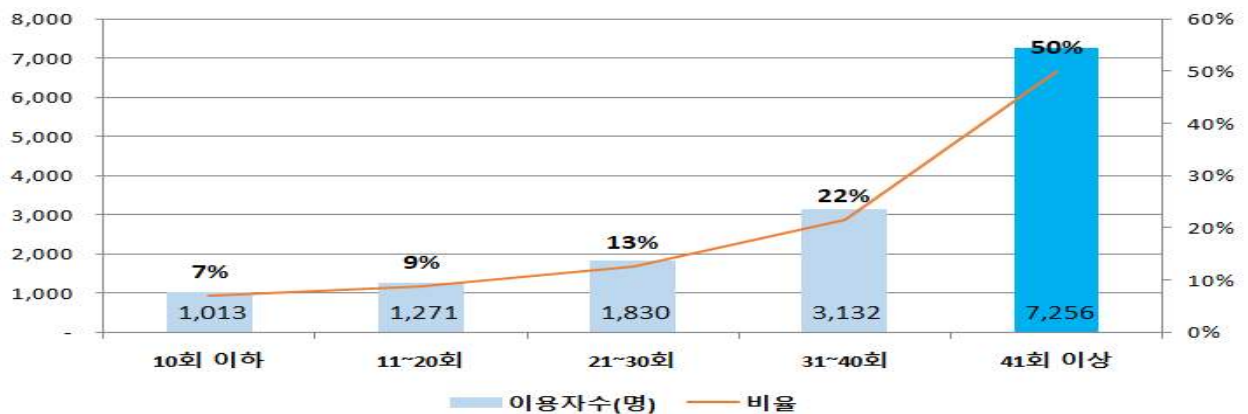
□ **지역별 이용자수 현황 (⇒ 수도권 지역 주민이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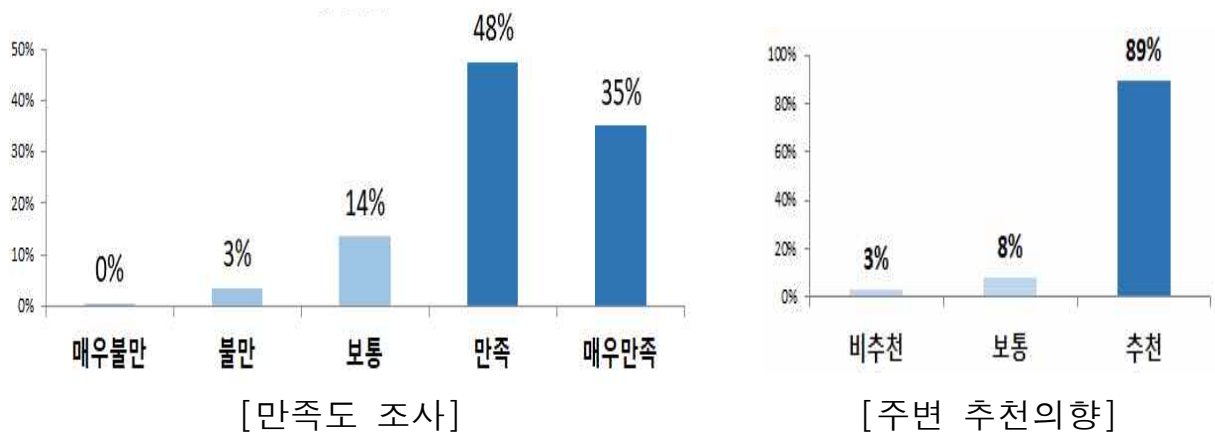
□ **지역별 분석 (⇒ 경기도가 마일리지 적립 최대)**



□ **이용횟수별 분석 (⇒ 월 41회 이상 이용자가 50%)**



□ 설문조사 결과 (⇒ 만족이상 83%, 주변 추천의향 89%)



□ '20년 대상지역 : 13개 시도(101개 시·군·구)

시·도	시·군·구	비고
서울특별시(3)	종로, 서초, 강남	
부산광역시(16)	부산광역시 전역	
대구광역시(8)	대구광역시 전역	
인천광역시(10)	인천광역시 전역	
광주광역시(5)	광주광역시 전역	
대전광역시(5)	대전광역시 전역	
울산광역시(5)	울산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경기도(31)	경기도 전역	
충청북도(2)	청주, 옥천	
전라북도(4)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경상북도(3)	포항, 경주, 영주	
경상남도(8)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양산	

※ 서울특별시 전역 포함여부 협의 중